

뻬레빈의 「니까」 다시 읽기

- 작가의 서사전략과 세계관을 중심으로 -

최행규 · 안병용*
(경희대학교)

1. 서론

뻬레빈(Виктор Олегович Пелевин) 문학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아마도, 그의 작품이 러시아 독자들을 러시아 문학으로 돌려보냈다는 평가일 것이다. 이는 그의 작품이 문학에 흥미를 잃은 독자를 비롯해서 과학환상소설이나 추리소설 등의 대중문학에 마음을 빼앗긴 독자들을 전통적인 러시아 고전에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뻬레빈에 대한 비평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며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가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¹⁾ 그의 문학이 지니는 경계로부터의 이러한 자유로움 또는 경계 파괴

* 최행규-제1저자, 안병용-교신저자

1) 엡슈테인(М. Эпштейн)은 그의 문학이 “대중문학도, 엘리트 문학도 아니며, 대중과 엘리트를 상호 선동하는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뻬레빈의 문학을 통해 모종의 ‘사회-심리학적 전환’이 이뤄지면서 대중과 엘리트라는 다분히 대조적인 성향을 지닌 독자들의 빈틈과 갈증이 해소되고 상호보완적인 만족감을 이끌어냈다고 말한다. Роман Арбитман, Сергей Боровиков, Михаил Эпштейн, Юрий Арабов, С. Витицкий, Виктор Пелевин. Академический выбор// Знамя. 2004. № 5.// <http://magazines.russ.ru/znamia/2004/5/konf10.html> 꼬르네프(С.

의 경향은 일찍이 그를 러시아의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다. 많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 그렇듯이 뻬레빈의 문학은 중요한 예술 기법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интертекстуальность)을 지닌다. 이런 상호텍스트성은 그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놓는데, 실제로 뻬레빈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러시아 고전 텍스트는 그의 해당 작품을 개념화하고 더 나아가 독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러시아 문학을 환기하게 하는 선순환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편소설 「니까(Ника)」 역시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²⁾ 이 소설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반 부닌(И. Бунин), 블라지미르 나보코프(В. Набоков), 가이포 가즈다노프(Г. Газданов), 미하일 레르мон토프(М. Лермонтов) 작품들과의 겉으로 드러난 관련성 이외에도 세부적으로는 알렉산드르 블록(А. Блок)의

Корнев)는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뻬레빈의 문학은 “조롱(стеб)과 진지함의 경계선 상에서 펼쳐지는 유희”라고 칭한다. С. Корнев, Столкновение пустот: может ли постмодернизм быть русским и классическим? Об одной аванюре Виктора Пелевина// НЛО. 1997, № 28. С. 248. 뻬레빈에게 유독 비판적인 넴제르(А. Немзер)는 “뻬레빈이 항상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일화에서 취한 슈제트들을 이리저리 이어 붙이고, 불교, 정보이론, 용이론, 신화에 대한 구조적 분석, 신비주의 등 현재 유행하는 온갖 지적 경향들을 끌어들이며 인문학적 현학성으로 가득 찬 텍스트를 써내곤 한다”라고 혹평한다. А. Немзер, «Как бы типа по жизни». 『Generation «П»』 как зеркал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инфантилизма// <http://www.guelman.ru/slava/writers/nemzer.htm> 이에 맞서 로드냐스카야(И. Роднянская)는 뻬레빈의 텍스트가 다양한 원전을 바탕으로 ‘콜라주’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텍스트의 구성자는 결국 뻬레빈 자신이며, 그가 적극적으로 정보사회에 대한 담론을 펼치는 이유는 결코 유행하는 지적 경향들 문학적 미기로 삼아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위함이 아니며, 그 자신이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바가 많기 때문이라고 옹호한다. И. Роднянская, Этот мир придуман не нами// Новый мир. 1999, № 8// http://magazines.russ.ru/novyi_mi/ 1999/8/rodnyan.html

- 2) 보그다노바(О. В. Богданова)는 자신이 2004년에 쓴 모노그래프(Постмодернизм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60-90-е годы XX века - начало XXI века). СПб., 2004)에서 발췌한 「니까」에 대한 논문(«Традиционный постмодернизм» в рассказе «Ника»// Бронзовый век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СПб., 2008)에서 새로운 논문 제목을 붙여가며 이 작품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작품, 보리스 그레벤쉬꼬프(Б. Гребенщиков)의 노래 가사와의 연관성³⁾ 등을 함축하고 있다.⁴⁾ 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의 영원한 테마인 남녀 성의 상관관계(тема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полов)⁵⁾, 잉여인간의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현대 문학의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의 작품이 지니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짧은 작품이 그토록 다양한 목소리를 지니는 것이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진 것보다 더 많은 영향관계의 분석이 이 작품의 연구에 앞으로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독서를 통해 작품이 지닌 가장 주도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에 천착하는 것도 연구자의 몫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뻬레빈의 ‘콜라주’에 감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드난스까야가 이야기했듯이 그 수많은 ‘콜라주’를 통해 그가 정작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뻬레빈은 여자주인공 니까가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였음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밝히면서 한바탕 독자를 속이는데 바로 이런 속임수 속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뻬레빈이 이런 속임수를 통해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종의 이러한 책략 속에 거의 유일하게 걸으로 드러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이반 부닌의 단편 「가벼운 숨결(Легкое дыхание)」에서부터 우리의 논의를

3) 「니까」에서 보리스 그레벤쉬꼬프의 이름은 그가 지은 노래 ‘электрический пёс’(실제 작품에는 복수형으로 나온다)와 함께 언급된다. 팔레소바와 하리또노프는 함께 쓴 논문에서 서양 문학 전통에 속하는 여주인공이자 현대 러시아 문학 속의 여주인공 유형인 니까를 보리스 그레벤쉬꼬프의 록-시가(рок-поэзия)의 여주인공과 비교하고 있다. Д.В. Колесова, А.А. Харитонов, «В ее маленьком теле гостила душа...»// http://www.gramota.ru/biblio/magazines/mrs/28_213

4) 베네볼렌스까야(Н. П. Беневоленская)는 「니까」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담은 약 100쪽 분량의 자신의 모노그래프에서 이 작품과 러시아 및 세계 문학, 근대 서양철학과의 영향 관계를 다각도로 밝히고 있다. Н. П. Беневоленская, «Ника» Виктора Пелевина. СПб., 2009.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작품은 플라톤, 칸트, 루소, 체르니шев스끼, 솔로비요프, 니체와 같은 사상가들 그리고 나보꼬프, Т. Фол스다야, 솔제니친의 작품과도 연관성을 맺고 있다.

5) Л. Миллер, Конфликт рассказа В. Пелевина «Ника» в контексте национальной эстет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и// <http://www.roman.by/r-4041.html>

시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독자의 이런 자연스런 오해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작가에 의해 작품 첫머리에 등장하는 「가벼운 숨결」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II. 「가벼운 숨결」로 「니까」 읽기

작품의 서두는 부닌의 「가벼운 숨결」의 마지막 부분의 거의 정확한 반복으로 시작된다. 두 단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Теперь это легкое дыхание снова рассеялось в мире, в этом облачном небе, в этом холодном весеннем ветре.⁶⁾

이제 이 가벼운 숨결은 세상 속에, 이 구름 낀 하늘에, 이 차가운 봄바람 속에 다시 흩어졌다.

Теперь, когда ее легкое дыхание снова рассеялось в мире, в этом облачном небе, в этом холодном весеннем ветре, и на моих коленях лежит тяжелый, как силикатный кирпич, том Бунина, я иногда отрываю взгляд от страницы и смотрю на стену, где висит ее случайно сохранившийся снимок.⁷⁾

이제, 그녀의 가벼운 숨결이 세상 속에, 이 구름 낀 하늘에, 이 차가운 봄바람 속에 흩어졌을 때, 마치 실리카트 벽돌 같이 무거운, 부닌의 책이 내 무릎 위에 놓여 있고, 나는 이따금 책에서 눈을 떼고 우연히 남겨진 그녀의 사진이 걸려 있는 벽을 바라본다.

빨레빈은 부닌의 「가벼운 숨결」의 종결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작가의 이름까지 거론한다. 또한 그의 작품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를 부여하고(как сил

6) И. А. Бун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6-ти т. Т. 4, М., 1988, С. 98. 이하 「가벼운 숨결」의 모든 인용은 이 책에 따르며, 인용문 끝에 쪽수를 표시한다.

7) В. О. Пелевин, Все рассказы. М., 2008, С. 319. 이하 「니까」의 모든 인용은 이 책에 따르며, 인용문 끝에 쪽수를 표시한다.

икатный кирпич), 작품 속에서 ‘её’로 지칭되는 한 인물의 사진을 회상조로 등장시켜 「가벼운 숨결」과 매우 흡사한 구성을 취하면서 자신의 짧은 이야기 가 그 작품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뻬레빈의 이러한 의도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지금까지의 「니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가벼운 숨결」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비중 있게 언급하였다.⁸⁾

젊고, 유난히 낙천적인 젊은 여자가 중년 남자의 삶과 연관되며, 종래에는 사고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스토리적 상호 일치, 여주인공의 운명과 관련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개별적 역할의 유사성 등은 「니까」를 「가벼운 숨결」과의 상호텍스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다.

특히 각 작품의 두 여주인공의 유사성은 보그다노바에 의해 매우 상세하게 지적되었다.⁹⁾ 그녀가 주장하는 유사성의 확실한 근거는 두 작품 사이의 계승적 관계이다. 보그다노바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수준에서, 서정적 주관적 고백이라는 서사의 수준에서, 그리고 여주인공으로 대표되는 등장인물의 체계의 수준에서 두 작품 간의 계승성을 논한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니까」의 시작 부분은 「가벼운 숨결」의 끝부분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주제나

8)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보그다노바의 《Традиционный постмодернизм》 в рассказе В. Пелевина «Ника»와 И. И. Яценко, *Интертекст как средство интерпрет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на материале рассказа В. Пелевина «Ника»)*// 《Мир русского слова》, № 1, 2001 가 있다.

9) 보그다노바는 우아함, 민첩함 등으로 대표되는 올라 메웨르스까야와 니까의 외양적 공통점, 무사태평함과 대범함 등으로 구별되는 양자의 성격적 유사성 등을 두 작품의 세부적 내용을 비교해가며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그다노바는 올라가 하는 일기쓰기와 책읽기(실제로 일기쓰기는 그녀의 황당한 죽음의 원인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책읽기는 그녀의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녀의 짧은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보그다노바의 이 두 행위에 대한 주목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를 니까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대립시켜 보여줌으로써 뻬레빈이 양자 간의 차이를 통해서도 유사성을 보여주려 했다고 주장한다. О. В. Богданова, *Указ. соч.*, 2004, С. 318-324를 보라. 사실 차이를 통한 이런 유사성의 제시는 나중에 니까가 고양이로 밝혀졌을 때 매우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작가에 의해 분명 계획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두 작품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그런 관계를 통해 니까에게 씌워진 올라의 이미지가 끝까지 벗겨지지 않도록 작가가 의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사 방식의 동일성, 여주인공의 내적, 외적 유사성만으로 계승 관계를 논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가벼운 숨결」과 「니까」의 계승적 관계는 두 작품에서 각각 여주인공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두 관찰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관찰자는 두 작품의 끝부분과 시작부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벼운 숨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매주 일요일 올라의 묘지를 찾아오는 그 여인은 올라의 학교 담임선생이었다. 그녀가 매주 올라의 무덤을 찾는 것은 올라가 한때 자신의 학생이었었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열정적인 꿈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특이한 인물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현실이 아닌 자신이 만든 허구 속에 살고 있다(давно живущая какой-нибудь выдумкой, заменяющей ей действительную жизнь., 98). 그런 허구의 대상은 처음에는 자신의 동생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보살피고 지원해주어야 하는 동생에게 모든 자신의 인생과 희망을 걸고 오로지 그의 성공을 꿈꾸었을 것이다. 실제로 동생은 매우 평범한 군인(소위보)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화려한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그녀의 공상(허구)은 동생의 죽음으로 중단된다. 동생의 죽음 이후 그녀가 스스로를 이상적인 근로자라고 설득하는 부분(она убеждала себя, что она - идейная труженица., 98)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올라의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공상을 불러일으킨다. 동생의 죽음이 올라의 죽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동생에 대한 집착이 올라에 대한 집착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라는 이제 그녀의 집요한 생각과 감정의 대상(предмет её неотступных дум и чувств., 98)이 되었다. 여교사는 주기적으로 올라의 무덤에 와서 그것도 몇 시간씩, 언젠가 우연히 엿들었던 올라의 말을 회상하곤 하는데 올라가 자신의 친구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여교사의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가벼운 숨결이라는 말이다. 사실 가벼운 숨결이라는 말은 올라가 자신의 아버지의 책들에서 읽은 바 있는, 여인에게 요구되는 아름다움의 목록 가운데 하나인데 여교사의 맹렬한 상상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보는 바, 평소 올라가 지녔던 우아함, 화려함, 쾌활함, 경쾌함 등이 그녀의 비극적 운명과 결합되고, 이것들이 다시 여교사

의 ‘집요한 생각과 감정’과 버무려져 세상 속에(в мире), 이 구름 낀 하늘에(в этом облачном небе), 이 차가운 봄바람 속에(в этом холодном весеннем ветре) 흩어지는 자유로움¹⁰⁾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따라서 「가벼운 숨결」에서 여교사는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올라를 무덤의 적막함과 십자가에 박힌 도자기 메달 속 사진으로부터 끌어내어¹¹⁾ 그녀의 지난 삶에 자유로움이라는 ‘숨결’을 불어넣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작품을 빨레빈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니까」에도 이 여교사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 작품의 화자인 주인공이다. 「니까」가 「가벼운 숨결」의 마지막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여교사의 회상을 실질적으로 이어받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인공은 여교사처럼 사진 속 한 여성에 대한 회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주인공 역시 니까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삶에 남겨준 의미를 떠올리고 있다. 그녀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사고(思考)들은 소유, 사물 존재의 의의, 인간의 문화와 문명 등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또한 세부적이다. 실제로는 고양이인 여주인공 니까가 주인공의 사고에 의해 그 존재 의의를 지니는 것은 올라의 가벼운 숨결이 여교사의 상상 속에서 자유로움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측면에서 「니까」의 주인공과 「가벼운 숨결」의 여교사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즉 몽상가(мечтатель)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여교사의 올라에 대한 회상이 ‘가벼운 숨결’이란 표현으로 구체화되었듯이 주인공의 니까에 대한 회상은 작품 속에서 ‘자연스러운 숨결’(естественное дыхание, 322)이란 어구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숨결’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과 ‘자연스러운’이 러시아어에서 단순하고 꾸밈이 없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의 계승적 관계는 재차 확인된다. 게다가 「니까」의 ‘자연스러운 숨결’에는 예술이 간절히

10) 올라의 자유로움에는 그녀의 비극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세상의 모든 권위, 위선, 제도, 가식,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11) 여교사는 사진이 들어 있는 도자기로 된 화환만 없어진다면 자신의 삶의 절반을 내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올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염원하는(безнадежно гонится искусство, 322) 것이라는 수식이 붙어있는데 이는 작가 자신의 문학적 창조 행위에 의해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된 증거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주인공은 니까의 단순한 운명(простая судьба, 322)이 자신의 허구(выдумка, 322)의 삶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의 니까의 동물적 삶(니까가 실제로 동물이긴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에 역시 자유로움이라는 ‘숨결’을 붙여넣는다. 니까의 자유는 이후 쓰레기통 위의 불꽃에서 1737년 모스크바 화재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А Ника была совершенно свободна от унижитель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относить пламя над мусорным баком с московским пожаром 1737 года, 324)로, 그녀의 자유로운 밤 외출로 구체화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 뻬레빈은 자신이 부닌의 「가벼운 숨결」을 구성적 측면에서 그리고 주제론적 측면에서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그리고 관찰자의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벼운 숨결」을 활용함으로써 뻬레빈이 얻게 된 무엇보다 큰 성과는 바로 독자를 끝까지 속여야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III. 「니까」 다시 읽기

이 작품이 작가가 특별히 고안한 문학적 속이기(мистификация)¹²⁾에 의거하여 창작되었으며 작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측

12) 뻬레빈이 고안한 이런 유형의 기법은 서양문학에서는 이미 오랜 전통을 지니는 것이다. 러시아 문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뿌쉬킨이 「벨킨이야기」에서 자신이 새롭게 시도하는 산문 분야에서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고 검열로부터도 자유롭고자 이런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뻬레빈의 속이기는 오히려 지난 세기 초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이야기한 문학의 ‘낮설게 하기’ 기법에 더 가깝다. 뻬레빈 작품과 ‘낮설게 하기’의 관계는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면에서 뻬레빈의 목표가 단순히 고전의 재해석(「가벼운 숨결」이나 작품 속에 언급된 다른 작가와 작품을 모두 포함해서)이나 고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유희¹³⁾에 있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독자는 작가에 의도적으로 제공된 「가벼운 숨결」에 대한 암시에 근거해 사랑 이야기¹⁴⁾ 또는 소녀의 슬픈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니까」를 읽어 나간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여주인공이 결국 사람이 아닌 고양이로 판명됨으로써 당황하게 되고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 자신의 오해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때 텍스트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층위가 열리게 되는데, 그간의 주인공과 니까와의 갈등 관계가 아닌 주인공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 갈등(이때 고양이는 그의 내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임의의 존재로 대체가 가능하다)의 차원에서 작품을 다시 읽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를 작품의 처음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는 그가 러시아 독자를 러시아 문학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행위와 비교해서도 매우 상징적으로 여겨진다. 만일 뻬레빈이 세간의 평가처럼 실제로 러시아 독자들을 러시아 문학으로 돌려보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고전을 회상시키는 차원 그 이상의 것일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니까」의 실험적 서술 방식은 어떤 정당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작가의 속이기가 폭로된 이후의 독서, 다시 말해 텍스트 해석에 대한 새로운 층위에 집중하면서 뻬레빈 문학의 특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가령 어떤 독자들은 처음 작품을 읽었을 때는 포착하지 못한, 사람과 동물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을 다시 읽으면서 첫 독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작가의 감쪽같은 묘사력에 감탄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이 작품을 다시 읽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사실 뻬레빈은 문체, 문맥, 예술적 형식의 많은 실험을 통해 저자와 독자의 상호관계를 완전한 해체에

13)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방, 복제, 패러디 등을 유희(игра)라고 부를 수 있다.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그의 문학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 그렇듯이 일종의 유희라고 할 수 있다.

14) 물론 올라의 경험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젊은 소녀로서 그녀가 지닌 경쾌함과 발랄함과 삶에 대한 기대와 태도 등은 포괄적으로 사랑에 테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달할 정도로 퇴화시키길 원했다.¹⁵⁾ 다시 말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독자에게 달려 있길 원했다. 이런 이유로 작품은 독자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완전한 유희가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이런 개인적인 독서 경험의 획득에 있지 않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녀가 떠난 자리’, 다시 말해 작품에서 ‘она’가 더 이상 사람으로 지칭되지 않는 자리에 남는 것은 ‘나’의 외로운 독백이다. 물론 처음부터 대화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보이는 ‘나’의 독백은 더욱 명료하게 다가오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다.

작품은 서술자 주인공이 그녀(고양이, 세상 또는 다른 그 무엇)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단상들로 가득 차 있다. 니까가 야기한 주인공의 철학적 단상은 편안함(удобство)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니카는 편안함에 대해 무관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관찰에 의하면 니카는 주인공이 즐겨 이용하는 안락의자를 필요에 의해 사용할 뿐 집착하지는 않는다:

Не то, чтобы Ника была равнодушна к удобствам — она с патологическим постоянством оказывалась в том самом кресле, куда мне хотелось сесть,— но предметы существовали для нее только пока она ими пользовалась, а потом исчезали.(321)

니카가 편안함에 무관심해서가 아니었다 - 그녀는 내가 앉고 싶어 하는 그 안락의자에 병적인 일관성을 보였다 - 그녀에게 대상은 그녀가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존재했고 그다음에는 사라져 버렸다.

대상이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진다는 생각은 철학적 사유에 가깝다. 존재 자체의 의의는 그것이 쓰임으로 인해 획득되며 그 쓰임이 다했을 때는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치라면 자신의 욕망이 늘 니카와 충돌한다고 믿는 주인공의 마음은 편안함에 대한 집착,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소유욕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제시되는 주인공의 고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은 앞의 문장이 소유의

15) Виктор Пелевин - самый модный писатель// <http://www.onlife.ru/1998/nov/page15.html>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Наверное, поэтому у нее не было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своего, я иногда думал, что именно такой тип и пытались вывести коммунисты древности, не имея понятия, как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результат их усилий.(321)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가끔씩 나는 고대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애써 공들인 결과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녀와 같은 유형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어지는 설탕그릇(сахарница)과 관련한 사건은 니까의 행동(외부의 자극)에 늘 반응하는 주인공 자신의 정신세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어느 날 니까는 찬장 위에 놓여있던 골동품 설탕그릇을 깨뜨리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물건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모아온, 존재의 실재의 증거들(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реальности бытия, 321)이 보관되어 있는 저금통 같은 것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담긴 수첩 쪼가리, 사용하지 않은 영화표, 다 기입하지 않은 약국 처방전 등. 이 증거들로 판단하자면 그의 삶은 뭔가 부족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니까에게 손찌검을 한 것을 사과하는 그의 말 속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엿볼 수 있다.

— Ника, не сердись. Хлам имеет над человеком странную власть. Выкинуть какие-нибудь треснувшие очки означает признать, что целый мир, увиденный сквозь них, навсегда остался за спиной, или, наоборот и то же самое, оказался впереди, в царстве надвигающегося небытия... Ника, если б ты меня понимала... Обломки прошлого становятся подобием якорей, привязывающих душу к уже не существующему, ...(맨 마지막 생략은 필자의 것임, 321)

니까, 화 내지마. 잡동사니 물건은 인간들에게 이상한 권력을 지녀. 깨진 안경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본 모든 세상이 영원히 등 뒤에 남겨나,

혹은 그 반대로,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앞에, 밀려오는 허무의 왕국에 있게 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 니까, 만약 네가 나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유물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 영혼을 매어놓는 닳 같은 것이 되는 거야...

그가 잡동사니(хлам)라 일컫는 것은 설탕그릇과 그 속에 담긴 내용물들을 포함한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깨진 안경을 버리는 것이 그걸 통해 바라본 모든 세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다소 비유적인 해설을 곁들이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에게 있어 사물은 과거의 유물(обломки прошлого)이며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에 영혼을 읊어대는 닳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사물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않는 과거의 기억을 새겨놓은 문화적 유산과도 같다. 이 구절은 그의 철학적 사색에 잠기는 성격, 지식인적 면모, 그리고 니까의 자연성에 충실한 삶과 대비되는 주인공의 인위성과 이성에 의해 구축된 세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창밖 마당의 풍경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선에도 인간의 문명과 문화에 대한 사고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 놀이터의 집모양의 놀이 시설인 붉은 쇠파이프로 만든 천막의 골조(каркас чума, сваренный из красных металлических труб, 323)는 오래 전에 사라진, 매머드 사냥꾼 문화를 그린 어린 시절에 독일산 도감에서 본 매머드 가죽으로 만든 작은 반구형 집을 상기시킨다. 그밖에 다른 사물들에 대한 생각들도 모두 인간 문화의 원류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세계로 인해 지쳐 있으며, 자신의 이러한 ‘지적 구조’(умственные построения)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자인한다. 이런 그에게 자신과는 달리 쓰레기통 위의 불꽃을 1737년 모스크바 화재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니까의 완전한 자유로움은 부러움과 기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는 니까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를 희망한다:

В сущности, со мной уже давно не происходило ничего нового, и я надеялся, находясь рядом с Никой, увидеть какие-то незнакомые способы чувствовать и жить.(324)

본질적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아무런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니까와 같이 있으면서 느끼고, 사는 어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알게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이 니까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я уже понимал, что имею дело не с реально существующей Никой, а с набором собственных мыслей, что передо мной, как это всегда было и будет, оказались мо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принявшие ее форму ... (생략은 필자의 것임, 324-325)

... 나는 이미, 내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니까와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 덩어리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그녀의 모양새를 취한 내 표상들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까의 죽음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유는 새로운 색채를 띤다. 그는 니까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Я не убивал ее, понятно, своей рукой, но это я толкнул невидимую вагонетку судьбы, которая настигла ее через много дней, это я был виновен в том, что началась длинная цепь событий, последним из которых стала ее гибель. ... и каждый из нас — соучастник массы убийств, в мире все переплетено, и причинно-сле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невосстановимы. Кто знает, не обрекаем ли мы на голод детей Занзибара, уступая место в метро какой-нибудь злобной старухе? (생략은 필자의 것임, 327)

분명 내 손으로 그녀를 죽이지 않았지만 운명의 보이지 않은 객차를 떠민 건 나이고, 수일 후 그 객차는 그녀를 불행에 빠뜨렸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초래한 사건의 긴 사슬이 시작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살인의 공범자이고 세계는 모든 것이 얽혀 있으며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바뀔 수 없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어떤 표독스런 노파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잔지바르 아이들을 기아에서 구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얼핏 보면 그의 사고는 과거 낭만주의자의 사고에 가깝다. 내가 행복하면 나로 인해 고통 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그의 사고는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견해이다. 그의 말처럼 그가 니까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긴 사슬(длинная цепь событий)¹⁶⁾에 따르면 바로 자신이 니까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 각자가 수많은 살해의 공범자라는 생각이나 지하철에서 표독스런 노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잔지바르 아이들의 배고픔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불교의 인과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매우 자연스런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은 불교의 인드라의 그물의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¹⁷⁾ 주인공의 사고가 현존하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소위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자신의 ‘지적 구조’ 속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자기 성찰에 가깝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 독서에서는 당황했을, 하지만 두 번째 독서에서는 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니까와 수고양이의 교미행위를 목격함으로써(실제로는 회상함으로써) 주인공의 사고는 다시금 진전된다.¹⁸⁾

16) 흥미롭게도 ‘사건의 긴 사슬’의 개념은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 체홉의 단편소설 「신학생」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다. 「전쟁과 평화」에서 빼에르가 안드레이에게 석공회 가입을 권하는 장면에는 “우리 조합의 근본적인 신념을 당신도 체득하여 우리 교단에 가입하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온몸을 내맡겨 우리가 지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쇠사슬 그 끝이 하늘에 숨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한편 「신학생」에도 “그는 과거가 어떤 것으로부터 또 다른 것이 시작되는 사건의 끊임없는 연쇄를 통해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쪽 끝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흔들리는 이 연쇄의 양쪽 끝을 방금 본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구절이 있다.

17) 뽀레빈의 소설 《Чапаев и Пустота》를 A. 게니스(Александр Генис)는 최초의 러시아 선불교 소설(дзэн-буддийский роман)이라 칭한 바 있다. Сергей Кузнецов, Виктор Пелевин: тот, кто управляет этим миром// http://kuchaknig.ru/show_book.php?book=27032 뽀레빈은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동양의 종교와 신비주의 문제를 연구하는 《과학과 종교》(Наука и религия)라는 잡지에서 일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그가 불교사상에 가까워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Собственно, сама по себе она ни на кого не похожа, подумал я, открывая дверь в квартиру, ведь если я гляжу на нее, и она кажется мне по-своему совершенн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искусства, дело здесь не в ней, а во мне, которому это кажется. Вся красота, которую я вижу, заключена в моем сердце,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там находится камертон, с невыразимой нотой которого я сравниваю все остальное. Я постоянно принимаю самого себя за себя самого, думая, что имею дело с чем-то внешним, а мир вокруг — всего лишь система зеркал разной кривизны. Мы странно устроены, размышлял я, мы видим только то, что собираемся увидеть...(생략은 필자의 것임, 331)

내가 생각건대, 특별히 그녀 자신은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아파트 문을 열면서 그녀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그녀는 내 나뉠대로는 완성된 예술 작품 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 속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아름다움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곳에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음을 지닌 소리굽쇠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언가 외부적인 것과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항상 받아들이지만, 주변 세상은 다만 다양한 굴곡을 지닌 거울들의 체계일 뿐이다. 우리는 이상하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들은 보려고 하는 것만을 본다...

주인공은 니까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려고 애쓴다. 그리하여 니까 자체는 그 스스로가 완전한 예술 작품이며, 니까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보는 모든 아름다움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과 마음속에는 마음의 어떤 구체적 대리물로서의 소리굽쇠(камертон)

18) 첫 번째 독서에서 이 다소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당황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여기에도 뻬레빈의 속이기 기법이 적용되었다. И.И. Яценко, Указ. соч. 이어지는 주인공의 생각들은, 상심한 주인공의 심정을 헤아린 독자들에 의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독서나 두 번째 독서 공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소리굽쇠는 대상에 반응하는 자기 마음에 대한 비유로서 일종의 고정관념 같은 자기 기준 또는 불교적 용어로는 카르마(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든 습관과 학습 그리고 유전된 무의식 등을 통해 업 또는 업식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듯이 주인공 역시 자신이 만든 업식에 따라 주로 외부적인 것을 인식하는데(имею дело с чем-то внешним),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계는 주인공도 이미 인지하고 있듯이 다양한 굴곡을 지닌 거울들의 체계(система зеркал разной кривизны)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거울이 사물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 거울에 다양한 굴곡이 있다면 그 사물은 항상 일정한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 온갖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세계가 주인공의 말처럼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의 사물이 결코 하나의 형태를 갖게 될 수 없을 것이며, 인간들이 사물을 하나의 형태로 그것도 무언가 외부적인 것(что-то внешнее)에 근거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 될 것이다.¹⁹⁾ 그리하여 마침내 주인공은 ‘우리들(인간들 - 필자)은 보려고 하는 것만을 본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순간순간 자신이 일으킨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니까」를 「가벼운 숨결」의 연장선상에서 읽는 행위,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니까를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같은 것이 인간은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고 하는 주인공(또는 작가)의 주장에 부합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니까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19) 다양한 굴곡을 지닌 거울의 체계(система зеркал разной кривизны)를 불교 교리에 맞춰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말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제행무상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해진 하나의 형태(상)가 없으며 또한 시간적으로는 항상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일정한 하나의 형태나 외양으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상(相)을 짓는다고 말하며 불교는 그런 상을 짓지 않음을 가장 중요한 수행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의 깨달음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중요한 4가지 상으로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꼽고 있다. 참고로 제행무상은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과 더불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법인(三法印)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주인공-화자의 모든 삶의 경험과 지식이 바로 인간의 이런 근시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벨레빈은 자신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속이기라는 문학적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러시아 문학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을까? 이 고양이는 약 100년 전에 가벼운 숨결로 흩어졌던 러시아 고전 문학의 여주인공을 소생시켰고, 러시아 문학 독자들을 고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으며, 러시아의 많은 몽상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인식의 전환에 이르게 해주었으며,²⁰⁾ 더불어 수많은 일반 독자로 하여금 그런 자신을 만든 이에게 주목하게 함으로써 그의 창조물을 다시 읽게 만들었다.

벨레빈은 자신이 만들어낸 고양이 한 마리로서 이 많은 일을 해냈다. 물론 그가 「니까」 하나로 러시아 독자들을 고전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여기서 고양이와 「니까」를 작가의 그런 목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니까」 자체에 대한 이해도 그런 목적을 좇아가는 여정을 본떠 이루어졌다.

두 번째 장에서는 「니까」와 「가벼운 숨결」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분석과는 별개로 두 작품 사이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두 여주인공에 대한 관찰자의 존재를 부각시켜 구성적 측면은 물론 주제론적 측면의 계승적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20) 작품은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로 가득하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첫 여름의 냄새를 실어오는데 이는 이제 차가운 봄바람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바람은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함으로 가득하며, 아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마치 약속하는 듯한 바람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더 이상 다른 고양이를 손에 들고 창가에 결코 서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인데 이는 그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더 이상 고양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본 작품이 작가에 의한 문학적 속이기에 의거해 창작되었음을 근거로 여주인공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하고, 주인공의 사유에 주의를 집중해 다시 읽기를 시도함으로써 좀 더 중요한, 작가의 창작 목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작가의 주요 창작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인간 인식의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그가 평소에 지니고 있었던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명되고 있다고 보았다.

러시아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뻬레빈은 다양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견고해져버린 전통적 문학의 경계 해체에 주력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과거와 현재, 상상과 현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고전 작품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²¹⁾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전통과 권위의 경계도 역시 해체된다. 이렇듯 뻬레빈은 자기만의 내적 삶의 세계에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태를 인식의 오류라 규정한다. 「니까」 역시 그런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에 대한 갈구이며, 그런 사로잡힘에 대한 경계라 말할 수 있다. 니까를 여자 주인공으로, 사람으로 규정함이 독자의 익숙함이라면 모양이로 밝혀진 니까는 그런 익숙함(인식의 오류)을 깨기 위한 작가의 장치이다. 그래서 그는 독자와의 숨바꼭질을 서슴지 않는다.

21) “뻬레빈은 과거에 대한 작가들의 사고와 감정의 단일의미성의 확신으로 인해 그들은 ‘정신적인 시체’로 변해버리며, 문화적 공간 자체는 공동묘지로 변한다고 말하면서 고전 문학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항상 비웃었다.” Сергей Кузнецов, Указ. соч. 본 논문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뻬레빈의 이런 견해에 따라 「가벼운 숨결」의 「니까」에서의 역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가벼운 숨결」의 「니까」에서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니까」와 유기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니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니까」의 주요 창작 목적을 철저히 숨기기 위한 평범한 덮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고전 작품을 대하는 뻬레빈의 태도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Беневоленская Н. П., *«Ника» Виктора Пелевина*, СПб., 2009.
- Бунин И. 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6-ти т. Т. 4*, М., 1988.
- Богданова О.В., *Постмодернизм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60-90-е годы XX века - начало XXI века)*, СПб., 2004.
- Богданова О.В., *«Традиционный постмодернизм» в рассказе В. Пелевина «Ника» // Бронзовый век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СПб., 2008.
- Колесова Д. В., Харитонов А.А., *«В ее маленьком теле гостила душа...»*// http://www.gramota.ru/biblio/magazines/mrs/28_213
- Корнев С., *Столкновение пустот: может ли постмодернизм быть русским и классическим? Об одной аванюре Виктора Пелевина*// НЛО. 1997. № 28.
- Кузнецов С., *Виктор Пелевин: тот, кто управляет этим миром*// http://kuchaknig.ru/show_book.php?book=27032
- Миллер Л., *Конфликт рассказа В. Пелевина «Ника» в контексте национальной эстет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и*// <http://www.roman.by/r-4041.html>
- Немзер А., *«Как бы типа по жизни». «Generation «П.» как зеркал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инфантилизма*// (<http://www.guelman.ru/slava/writers/nemzer.htm>).
- Пелевин В. О., *Все рассказы*, М., 2008.
- Роднянская И., *Этот мир придуман не нами*// Новый мир. 1999. № 8. (http://magazines.russ.ru/novyi_mi/1999/8/rodnyan.html).
- Роман Арбитман, Сергей Боровиков, Михаил Эпштейн, Юрий Арабов, С.Витицкий, Виктор Пелевин, *Академический выбор*// Знамя. 2004. № 5. (<http://magazines.russ.ru/znamia/2004/5/konf10.html>).
- Яценко И.И., *Интертекст как средство интерпрет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на материале рассказа В. Пелевина «Ника»)*// *«Мир русского слова»*, № 1, 2001.

❖ ABSTRACT

A Study of Victor Pelevin' Short Story "Nika"

Choi, Haeng Gyu · Ahn, Byong Yong

One cat caused a big wave in Russian literature. This cat revived the heroine of Russian classics. Her light breath was scattered in the world, in the cloudy sky and in the cold spring wind about one hundred years ago. And the cat gave an opportunity of turning to Russian classics to Russian readers. Thanks to this cat, a Russian dreamer changed his typical thinking, as well as many ordinary readers start to read works of creator of this wonderful cat.

Pelevin accomplished these works with one cat, which he has made. Of course "Nika" is not only caused to make readers to return to Russian classics. I think, the cat and "Nika" are the symbols of writer's purpose in Russian literature. In this study the understanding of "Nika" is following the steps of realization of writer's purpose.

In the second chapter it is analyzed to the textual relationship between "Nika" and "Light breath". Apart from existing analyses to be emphasized the succession of thematic aspect of two works as well. Existence of observers to each heroine stress this succession of thematic aspect of two works.

In the third chapter it is analyzed the use of technique of mystification in "Nika". This intentional use of mystification has been demanded to read a "Nika" from another point of view(internal speculation of hero-narrator). The purpose of writer was to expose the cognitive error of a human being. I think this purpose was effectively explained by Pelevin's Buddhist world view which was introduced in his several works.

Key Words

벨레빈, 니카, 가벼운 숨결, 불교적 세계관, 인식의 오류

Pelevin, Nika, Light breath, Buddhist world view, cognitive error

논문접수일: 2013. 11. 10

심사완료일: 2013. 12. 06

게재확정일: 2013. 12. 12